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차별현상’도 진짜 아닌 ‘허공성’

듯하다 ④

그러나 그 차별 현상이 전부 아니에요? 그러하니 그걸 참작을 해서 여러분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 말입니다. 이 달 중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진짜 공부합시다. 여러분, 설법 듣는데 상식적으로 듣지 마세요. 상식 그 까짓 거 또 가지면 뭐합니까?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사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하니 우리 진짜 공부를 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하니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걸 이 달 중으로 해답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하시고 아시거든 종이에 이름을 써서 나한테 내 주십시오. 내 주변 율오면 율오 또 잘 안 되었으면, 고칠 것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만 꼭 하려고 하면 됩니다.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석가세존이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유마 거사가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아, 석가세존은 석가세존, 유마 거사는 유마 거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석가세존이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고 유마 거사가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고 우리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겠어요? 중생이 부처 되는 겁니다. 부처도 미하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장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유구 무언입니다.”

하하하. 우리는 확증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싯달타 태자가 성불을 했어요. 또 우리는 고맙게도 공덕에 됐네요. 싯달타 태자가 성불을 할 때 그 전생 전생 전생 수 겁 동안 그 유구공덕 무무 공덕을 무수히 쌓으셨다 말이지요. 그래서 딱 한 결과에서 ‘이러니라’ 하고 딱 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조금도 싯달타 태자 그 양반, 석가세존 머리털만큼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머리털만큼도,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네. 마야 부인의 뱃속에서 딱 나와서 일곱 자국을 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아래 나 홀로 높다는 말을 했는데 내가 한 말을 백주(백하) 경이 틀렸어요. 그때 누가 했냐. 여러분들이 했네. 경이 틀렸어요. 그러나 그 때 석가세존도 같이 했지? 석가세존도 발가슴이 여러분도 발가

숨이었어. 그 당시에. 여러분들 불교를 믿으려면 절대로 들로 보지 마세요. 들로 보면 도깨비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증거가 있잖아요? 허공이 하나인데 왜 우리가 둘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만 차별현상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지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허공성이란 걸 우리가 알 때 들어있을 때야 들어있지 않아요. 무의미하게 들어있어. 차별현상이 진짜라면 거기 들어있어 보지만은 나중에 지옥에 갈 값에. 그러나 차별 현상 이것도 진짜 아니네. 전부 허공성인데. 허공성인지 뻔히 알면서 어찌 우리가 거기 들어있잖나 그 말이에요. 그러하니 여러분들 어떻게든 일도양단 하십시오.

우리는 내일부터 장좌 불과 들어갑니다. 내일 서울에서 청년들도 오고 하니

“

자나무밭에서 이는 소리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화두를 가지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석가세존 · 원효대사처럼

여러분도 가능해요

나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

이 청년들 집에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각오했습니다. 석 달 동안 장좌 불과 할 작정입니다. 물론 앉아서 자기도 하겠지요. 어쨌든 내일부터 장좌 불과 하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장좌 불과 하세요. 몸은 누워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장좌 불과 하세요. 마음으로 장좌 불과를 하시려면 우리가 장좌 불과를 한 거나 똑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니까 석 달 이내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누리의 진리를 모르고는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합니다. 누리의 진리를 모르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온 곳을 모르니 가는 곳을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은 전부 도깨비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부 듯하는 도깨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듯하는 이걸 진짜로 알아서 도깨비 놓음하는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숨을 거둘 때 장탄식 해 봤든 용서 없습니다. 장탄식 해 봤든 죽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부 듯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 아까 자나무 밭에서 일어나는 소리. 성품과 경계. 이걸 연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답이 곧 나옵니다. 이 답이 나오면 그 땐 여러분들에게 내일쯤 화두를 가질 분들은 드리겠는데 화두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 조사님들은 그만 두고라도 석가세존이 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섭존자도 됐고 아난 존자도 됐고 이십 팔조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효대사도 됐고 부설 거사도 됐고 많습니다. 솔하게 많은 사람들이 됐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이걸 그 사람들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더욱 처녀애들 중국의 영조 아가씨 참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월명 아가씨, 전부 다 굉장합니다. 다 이리 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리 된 일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되었어요. 남이 되니까 미안해서 사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까만 여러분 이 문제 조금도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사양하면 그건 참말로 바보입니다. 이전 부모한테도 양보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도 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하고 어머니 아버지 구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몸을 천 동거리 만 동거리 낼 수 있어도 이거는 양보 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절대에 속하는 겁니다. 친구도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소용없는 데 친구가 소용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라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나부터 해 놓고 구하는 법입니다. 내 육신을 달라면 육신까지 줄 수는 있지만 이걸 줄 수 없습니다. 이 공부 줄 수 없습니다. 절대에 속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성 문제를 파악하지는 것이지만 말이죠. 이 수단 방법도 절대에 속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 도리가 없습니다. 한 번 이 기회를 놓쳤다면 할 것 같으면 어느 때 다시 사람의 몸을 받으려는지 어떻게 우리가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불성 있어도 부처 자격 갖춰야 부처 가능

10. 행원례 (行願禮)

① 예경제불(禮敬諸佛)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 所有十方世界中三世一切人獅子 我以清淨身語意一切遍禮盡無餘 普賢行願威神力 普賢一切如來前 一身復現剎塵身 一一遍禮剎塵佛 願共諸眾生往生安樂國

여기서 예경제불(禮敬諸佛)의 예경은 앞에서 말한 바인데 제불이라는 데 대하여는 그러니까 모든 부처라고 한다면 광범위한 것이지만 예에는 원효대사(元曉大師)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알기 쉬울 것이다.

원효대사는 제불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 과만족 덕불(果滿足德佛)이다. 과가 만족스러운 덕을 이룬 부처다. 과는 모든 수행의 결과라는 뜻. 「만족스러운 덕」이란 다시 말하여 덕이 만족스러운 것을 이룬다. 이는 수행하는 우리가 그 수행의 결과로 모든 덕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성스러운 지경에 들어가 깨쳤다, 도통하였다. 부처가 되었다(成佛)고 한 때 의 바로 그 지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둘째는 여래장불(如來藏佛)이다. 여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구세주(救世主)라고 알아두는 것이 좋다. 범어로는 다탕아다(Datangada)라고 하여 응공(應供)의 뜻이 있는데, 이를테면 모든 사람에서 공양, 즉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커다란 자격을 가졌다. 모든 사람에서 응당 존경을 받을만한 어른이라는 것.

또 정변지(正?智)라고 하여 지혜가 어느 곳이나 두루 광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명행족(明行足)이라고 하여 밝은 행동이 구족하다는 것을 일컫는다. 사람의 행동이 밝지 못하면 「킁킁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선사, 잘 하고 돌아가셨다는 말. 사람으로서 할 짓을 다한다. 모든 일을 잘 하고 간다. 할 짓을 못하고 가면 뒤가 시원찮게 된다. 존경을 안한다. 우리가 민중의 태양으로 받드는 이순신 장군은 그의 행동에 한 군데도 명행족 아닌 구석이 없었으며 성심 성의를 다하여 국난을 건지고 돌아가셨다. 할 짓을 다 하고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이를 선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짓을 못하고 간 사람은, 왕이라도 연산군(燕山君) 같은

이나, 자기 아니면 대통령할 사람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4·19의 학생 데모로 「당신은 몰라가지요,하는 통에 아야한이나, 잘 하고 돌아갔다고 말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안 잘하고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은 세간해(世間解)다. 세상일을 모두다 이해하고, 잘 알고, 정곡을 꿰뚫어 보고, 인정의 기미를 잘 헤아리고, 인간의 진실을 잘 포착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무상사(無上師)이다. 위에 덮을 수 없는 위대한 스승이다.

그러하여 또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天人師)라고 한다. 이와같은 어른은 불타(佛)다. 깨친 어른이다. 또한 이러한 이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므로 세존(世尊)이라고 한다.

여래(如來)라는 말 속에는 위의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다.

“

우리가 바로 디디고 있는 것은 모두가 부처라 할 수 있다.

세계도 국가도 부처

시방세계 안의 모두가 부처

일체 여래 앞에 모든 것 부처

”

그런데 여래장불(如來藏佛)이란 우리가 여래(如來)를 간직하고 있다(갖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 자체내에 여래가 들어 있다는 말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본능적으로 원래 타고났다는 것이다. 일체 중생이 원래 본각(本覺)의 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누구나 알뜰히 지성을 다하여 행동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에는 노력을 요하고, 노력의 결과 성스러운 지경에 도달하기 까지는 역시 일개 범부(凡夫)이며 아직은 미망에 사로잡혀 허둥대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대로 부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부처다.

그리고 제불의 셋째는 상형불(象形佛)이다. 앞에서 말한 여래장불이나 과만족 불(果滿足佛)은 대개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형상불은 원효대사의 독특한 견해이

며 이것만으로 보아도 그는 대단한 행안을 가진 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형불은 생명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유정(有情)이 아니고, 의식(意識)이란 것은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함이나하면, 우리가 법당에 모셔 놓은 불상은 쇠로, 구리로, 돌로, 흙으로, 나무로 다듬어 상형을 조각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예불을 드린다. 다시 말하여 흙이나, 돌이나, 쇠나, 은이나, 또는 종이에 그린 그림까지도 상형을 만들어 이를 부처로 모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인즉 흙이나 돌 만이 부처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디디고 있는 돌이며 흙이며, 우리 둘레에 있는 온갖 물질을 모두 다 부처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원효대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우리가 몸에 지닌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에서부터 펜이나, 종이, 책상, 잉크, 벽, 뜰, 공기, 수목, 산, 물 할 것 없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물질이 다 부처 아닌 것은 없다.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것, 또 좁혀서 국가라고 하는 것, 국토라고 하는 것이 역시 다 부처다. 국가는 우리의 부처님이다. 국토가 부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의 나무를 꺾거나 하여 국토를 황폐케 한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만다라인 도량을, 부처님이 계시는 터전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지상천국이라는 말이 있지만 원효대사의 이 상형불의 취지를 새겨보면 그 말이 이만치 간략한 표현을 얻지는 못하였음을 깨닫는다. 우리 국토의 돌 하나하나 흙 한줌에 이르러까지 모두가 다 부처라는 이 일탈한 사상은 일찍이 아무도 가져본 적이 없으며 또 범위의 그 광대 무변함을 감히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저 태양이다. 달이다 하는 성운계(星雲系)의 모든 별들, 대기(大氣)며 에테르며 부유하는 그림이며 우주의 모든 현상계(現象界)가 다 부처이므로 우리는 경건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회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입니다.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 함

사찰 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부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중단사찰 가능

35년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수내용

- ①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 ②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 ③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 ④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 ⑤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 ⑥ 과학적인 오오리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 ◆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 ◆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 ◆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향
 - ⑦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 ◆ 수감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 ⑧ 효소점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심판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